

MBC 정상화 일본 일초가 급하다

해직동료 “공영방송 재건작업 시급”



노조 창립 기념일인 어제 해직 동료들이 총파업 집회에 참석했다. 박성제, 정영하, 박성호, 강지웅 조합원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 갔고, 영화 <공범자들> 미국 상영차 출국한 최승호 조합원과 투병중인 이용마 조합원은 함께 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를 전해왔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때론 공감하며, 때론 눈물을 흘리며 해직 동료들의 발언을 경청했다. 1,2심 ‘해고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길게는 2000일 넘게 일터로 돌아오지 못한 해직자들의 발언은 개인의 고통과 억울함 보다는 공영방송 재건을 위한 깊은 고민으로 가득했다.

“이번 파업은 이길 수 밖에 없는 싸움”

암과 투병중인 이용마 조합원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또렷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7년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종결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질기고 독하고 당당했던 우리의 싸움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품으로 자랑스럽게 돌아가자”고 말했다. 170일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위원장은 “충분히 싸우고 지켜본 만큼 이제는 책임과 권한

있는 사람들의 결단과 결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직 동료 6명의 메시지는 일맥상통했다. 이번 파업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공영방송을 재건하는 작업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총파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

오늘로 파업 38일째. 그동안 방문진 유의선 이사를 끌어내렸고,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했으며, 김장겸과 백종문 등 전현직 경영진 6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파업이 만들어낸 성과들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김연국 노조위원장은 “10월부터 총파업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방문진 적폐 이사와 MBC 경영진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제차 촉구했다.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방문진 적폐이사들의 비리와 MBC 경영진의 범죄 증거들을 추가로 폭로하고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경고도 내렸다.

검찰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

했다. 국정 원을 동원해 MBC를 장악한 모든 불법행위, 정치공작에 대해 끝까지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조합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협력한 부역자들은 결국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직 동료들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당신들이 서류를 뒤적거리는 동안 우리는 숨통이 끊어져가고 있다”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이 땅의 사법정의를 살아있음을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청자”라며 “과분할 정도의 응원을 받고 있는 만큼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공영방송 MBC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6명의 해직자들이 말하다



“국민의 품으로 자랑스럽게 돌아가자”

이용마 조합원 / 해고 2047일째

지난 7년간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이제 종결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우리가 싸운 상대는 단순히 무도한 경영진이 아니었다. 그들의 배후에는 무도한 국정원, 무도한 정권이 있었다. 그런 정권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 경영진을 뒷받침했던 정권은 사라졌다. 국민 절대 다수도 우리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 끝이 보인다. 경영진은 ‘배 찢라’ 식으로 버티고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저들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쫓아내고 공영방송을 되찾자. 질기고 독하고 당당했던 우리의 싸움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품으로 자랑스럽게 돌아가자.



“결단과 결행만 남았다”

정영하 조합원 / 해고 2018일째

파업이라는 극한 저항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표현이다.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만큼 했고, 진정성도 충분히 보여줬다. 이제 MBC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과 결행만 남았다. 명분은 충분히 쌓았고 충분히 지켜봤다. 위법행위를 일삼은 방문진 이사들과 MBC 경영진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은 이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루 빨리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

가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진 자들이 결단하고 결행해 달라.



“9부 능선 넘었다”

강지웅 조합원 / 해고 2018일째

지난해 쓴 글에서 “권력은 화무십일홍이다.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불과 1년 6개월 만에 현실이 됐다. 촛불 정국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과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싸우는 이 모습 모두 기적 같은 일이다. 우리는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이 산을 넘어 내려가는 길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적들, 기생충 같은 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골든타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박성호 조합원 / 해고 1961일째

MBC가 정상화되길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어찌면 우리에게 좋은 저널리즘, 좋은 방송사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BBC 구성원들은 자신들 DNA에 ‘불편부당성’이 있다고 애길 한다. 우리는 구성원 모두 매일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의미를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시민을 두려워하는 방송’, ‘시민을 섬기는 방송’으로 우리의 DNA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시간이 무작정 길어질 수는 없다. 녹화 방송으로 뉴스를 내보내는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MBC를 살릴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이 절차를 중시하는 건 존중하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의 문

제가 자칫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MBC 사태가 정치적 일정에 종속되는 순간,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적폐청산의 반대편에 적반하장이 있다. 이 적반하장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무언가 모색하지 못하도록 빨리 그 싹을 잘라야 한다. MBC를 살릴 골든타임을 잊지 말아 달라.



“찬바람 불기 전에 돌아온다”

박성제 조합원 / 해고 1940일째

지금의 우리 상황을 탄핵 정국에 비교하면 이미 탄핵소추안은 가결됐고, 현재의 최종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결정돼 있고 다만 절차가 남아있을 뿐이다. 김연국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믿고 따라가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승리가 와 있을 것이다. “찬바람 불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5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는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승리한 다음날, 멋진 양복을 입고 출근하겠다. 그때까지 집행부에 대한 신뢰 잊지 말고 열심히 싸우고 해직자들을 기다려 달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최승호 조합원 / 해고 1940일째

〈공범자들〉 미주 상영 투어를 위해 미국 LA에 와 있다. 이곳에서도 MBC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이들과 함께 외쳐보겠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검찰, 전현직 경영진 수사 본격화

“철저한 수사로 언론탄압 단죄하라”

檢, ‘국정원 꼬나풀’ 의혹 전영배 소환 조사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어제(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재철 사장 재임시 기획조정실장과 보도본부장 등을 지낸 전영배를 전격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영배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인사들과 접촉해 MBC 간부들은 물론 일선 기자와 PD들의 성향까지 파악해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듯, 검찰은 전영배를 소환해 국정원 관계자와의 내통 여부와 내용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MBC 장악 지킴’ 어딘가에 그의 이름이 걸려 있었던 모양이다. 김재철도 조만간 중앙지검에 소환될 전망이다. 김재철이 소환되면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돼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당노동행위’ 검찰 수사도 본격화

같은 날 서울 서부지검도 노동청에서 송치 받은 MBC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박종욱 조합원과 이정식 조합원 등 MBC 소속 기자와 PD 5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피해 증언을 들었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을 배치하는 등 사실상 1개 부서를 전원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노동 사건에 이런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린 건 이례적이다. 부당 징계와 전보 등의 피해를 입은 2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다음 주까지 차례로 검찰에 나가 피해 증언을 한다.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기소 의견 딱지가 붙은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등 6명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부당 징계·전보는 정권의 언론 탄압

‘신천교육대’와 ‘스케이트장’ 등 조합원들의 인격을 말살한 각종 ‘유배지’, 그리고 제작진과 출연진을 입맛대로 갈아치운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모두 국정원의 철저한 기획에 따른 공작이었다. 국정원이 2010년 3월에 만든 ‘MBC 장악’ 문건을 보면, 노조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동자에 대해선 적극적 사법처리’를 주문하고, ‘일선기자·PD들에 대해선 전면적 물갈이’를 지시하고 있다. 부당 해고·징계·전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국정원이 총괄 지휘한 것이다. 결국 해고도 유배지도 블랙리스트도, 정권이 MBC를 파괴시키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한 반헌법적 범죄였던 것이다.

부역 경영진, 언론자유 파괴 범죄자

국정원의 기획대로 무수한 부당노동행위들이 MBC에서 실제 자행됐던 건, 김재철과 김종국 안광한 김장겸에 이르기까지의 MBC 전현직 경영진들이 ‘親정권 부역 체제’였던 걸 방증한다. 이들의 부역 행위는 단순히 노동법 위반을 넘어 대한민국 언론을 탄압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범죄다. 검찰의 수사 역시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개별 실정법들을 위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킨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할 것이다.

수사 대상 확대해야

이들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김재철 김장겸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선 적극적인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도주나 증거 인멸 등 추가적인 수사 방해 시도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6명 외에도 권재홍과 이진숙 등 다른 전·현직 임원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임원으로 재임하며 국정원 기획대로 노조 파괴와 조합원 탄압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실무에서 총괄하고 실행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도 당연히 이들을 불러 국정원과 내통해 MBC를 파괴시킨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영진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언론을 탄압하고 MBC를 파괴한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남아 있다면 MBC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



방통위 검사감독 “좌고우면 안된다”

자료 제출 차일피일…한 차례 연기

방문진 이사진들이 방통위의 검사감독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면서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에 착수하면서, 방문진 및 MBC와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문진은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사진들의 일정상 이사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자료 제출을 미루기에 급급하다 제출 기한 마지막 날 “10월 11일 (오늘)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방통위는 모레(13일)까지 제출 기한을 연장해준 상태다.

방문진 이사진 버티기, 해임 사유 은폐 꼼수

방통위가 방문진에 요청한 자료는 MBC 사장 추천 및 해임 관련 자료, 노사 단체협약 관련 자료, 소송현황과 소송비용 지급 내역, 회의록

과 속기록 등이다. 자료가 공개되면, 방문진이 MBC 관리감독 책무를 내팽개치고, MBC 경영진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조작한 확실한 물증이 나올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고영주 이사장을 포함해 방문진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국내외 출장여비 집행의 구체적인 내역까지 요청 자료에 포함시켰다. 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위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크다. 방문진 이사진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건, 차고 넘치는 자신들의 해임 사유를 은폐하려는 것이다.

방통위, 좌고우면 말고 검사감독 직행해야

이런 방문진의 버티기 꼼수에 방통위마저 휘둘리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방통위가 방문진의 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당초 계획된 검사감독 일정이 열흘 이상 늦어지게 됐다. 내일부터 이틀간 이어질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한 ‘눈

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문진 이사진들의 검사감독 시간 끌기는 MBC를 파괴시키려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다. 방통위의 검사감독이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이유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공영방송의 비상사태”에서 “감독기관인 방통위마저 손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공영방송의 비상사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잇따른 결방·불방 사태와 사상 초유의 ‘녹화 뉴스’까지 등장했다. 공영방송 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감독의 고삐를 늦춘다면, 방문진과 더불어 직무유기의 공동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방통위의 검사감독과 별개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진들의 또다른 비리 행위들을 폭로할 계획이다. 이미 MBC를 망가트린 차고 넘치는 해임 사유들에 개인 비리 행위까지 더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일말의 양심까지 스스로 저버리고 자진 사퇴를 끝까지 거부하는 이사진들은 강력한 청산 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15시간 밤샘 조사…“날날이 증언했다”

수백 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검사는 물었고 조합원들은 답했다. 어제(10일) 서울 서부지검에서 진행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참고인 조사는 아침 10시에 시작해 하루를 넘긴 새벽 1시쯤에 끝났다. 이정식, 이영백, 박상연 PD와 박종욱, 김민욱 기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식사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동안 질문과 대답이 밀도 높게 이어졌다. 검사의 질문은 2012년 파업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조합원들이 겪었던 부당전보, 징계 등에 집중됐다. 2012년 파업 중 대기발령을 받고 신천교육대를 거쳐 현재 구로로 유배당한 이정식 PD는 지난 5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많이 잊으려고 했고 분노를 누르고 살아왔는데,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다보니 그때의 분노와 좌절이 다시 살아났다”며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이 행한 가혹한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이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라도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백 PD는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사측의 주장을 접하기도 했다. 신사업개발센터를 만들어 기자, PD들을 보낸 것에 대해 사측이 ‘새로운 사

업개발이 필요해 부서를 만들었지만 직원들이 나태해서 결과물을 못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PD는 “신사업개발센터가 했던 스케이트장과 여의도 사옥 주차장 사업 외에도 유배당한 기자와 PD들은 수 십개의 사업 기획을 냈다. 하지만 대부분 묵살됐다”고 검사에게 대답했다.

광화문과 경인지사로 부당전보를 당했다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복귀한 박종욱 기자는 자신이 발제한 아이템이 불방됐을 때의 구체적인 상황, 또 지난 5년간 자신이 당했던 부당 전보·징계에 대해 검찰 측에서 아주 세세한 사실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증거 쌓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박 기자는 “15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조사하는 만큼, 내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

2012년 파업 이후 경인지사, 미래방송연구소,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유배지만 계속 전전했던 김민욱 기자에게는 특히 ‘신천교육대’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김 기자는 “신천교육대의

‘브런치 교육’이 정말 직무 향상과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검찰이 논리의 각을 세워가는 게 느껴졌다”고 했다. 검사 3명에 수사관 7명이 총동원된 수사팀에 대해선 “밤 늦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부장검사가 퇴근하지 않고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말로 분위기를 전했다.



출연자·작가 11명 ‘녹화 뉴스’ 거부 선언 “망가진 뉴스 동참할 수 없다”

지난달 11일 뉴스AD 5명이 뉴스 제작을 거부한데 이어, ‘뉴스투데이’와 ‘이브닝 뉴스’의 출연자와 작가 등 11명이 뉴스 제작 불참을 선언했다. 사상 초유의 ‘녹화 뉴스’ 제작에 항의하고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다. 뉴스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건 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다하다 ‘녹화 뉴스’까지 틀며 시청자들을 대놓고 속이는 작태엔 더 이상 기여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계약직 신분인 이들의 제작 불참이나 거부는 당장 퇴사나 실직까지 불사한 결정이다. 부당하지만 불이익까지 감수해야할 처지다. 지난 5월, 이들은 사측으로부터 갑자기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계약 위반 시 200만 원의 벌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뉴스 제작 거부는 그만큼 쉽지 않은 결단인 것이다. ‘녹화 뉴스’가 결정적 계기가 됐지만 이들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총파업 돌입 당시부터 그 취지에 동의하고 지지해왔다고 한다. 이들 나름의 제작 거부도 자발적으로 준비하기도 했지만, 사측의 각종 회유와 압박으로 시기가 늦어졌다고도 했다.

지금 당장엔 MBC에서 일을 그만두고 퇴사할지언정, 총파업이 승리하고 MBC가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와 일을 하고 싶다는 이들의 애기를 들어봤다.

뉴스투데이 출연자

김유정 ‘교통정보’
김이선 ‘연예투데이’
유승민 ‘이시각 세계’
김오희 ‘스마트 리빙’
이종희 ‘별별영상’
현지혜 ‘지금이 제철’



뉴스투데이 작가

유지영 조현정 정은주

이브닝 뉴스 출연자

김수산 ‘톡톡영상’
나경철 뉴스 앵커

제작 거부를 하게 된 이유는?

김유정 :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투데이’는 우리 코너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뉴스 속에 각 코너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뉴스 없이 우리 코너로만 녹화해 방송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김이선 : 최근 뉴스 봤나. 그건 뉴스가 아니다. ‘파업해도 문제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투데이’가 변질되는 걸 원치 않았다.

유승민 : 사전 제작으로 한다고 해서 제작과정을 봤는데 공중파에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구나. 너무 엉망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니까 내려오기 쉬웠다.

망설임은 없었나?

유승민 : 고정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니까 생계 문제가 제일 큰 걱정이었다. “프리랜서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주변 반응도 고민하게 했다.

김유정 : 200만 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이라는 계약서 조항도 문제였다.

사측의 회유나 압박은 없었나?

김오희 : 계약 관계(위약금)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 건지 물었다.

김유정 : “이번 파업은 사장 임기인 2020년까지 간다. 너희는 너네 하던 일 열심히 하면 된다”고도 했다.

MBC가 망가진 걸 현장에서 느낀 건가?

김유정 : MBC에서 일한지 17년 됐다.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부터 MBC에서 일했다. 어딜 가든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줬다. MBC에 다닌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후배들에게 물어보니 최근에는 MBC하고는 인터뷰 안한다고 거절당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나도 요즘엔 MBC에 다닌다는 말을 잘 못한다. 부끄럽기 때문이다.

집회에 참석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

김유정 : 그만 둔 뉴스 AD들이 집회 때 말하면서 울었다기에 솔직히 왜 눈물이 날까 그랬다. 그런데 집회 무대 앞에 서니 앞에 아는 얼굴들이 보이더라. 2012년 파업 직전까지 박성제·박성호 기자하고 같이 일을 했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씩 하라고 했을 때 말을 할 수 없었다.

MBC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김유정 : 프리랜서지만 다른 곳에 가겠단 생각은 없다. 정상화 돼서 다시 불러주신다면 함께 하고 싶다. 이게 끝이라고 해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김이선 :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MBC 구성원이라면 MBC를 사랑하는 마음, 공정 방송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고 자부한다. 멋진 모습으로 국민의 품에 돌아오도록 함께 응원하겠다.

김오희 : 이번엔 꼭 이기십시오. 정말.

단일노조 출범 21년 공정방송 넘어 민주주의 보루로



도건협
수석부위원장

어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지부장들이 모두 상암동 MBC 로비에 모였다. 단일노조가 만들어진지 21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1996년 10월 10일, MBC 19개 계열사의 노조는 전국문화방송 노조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됐다. 광주MBC 따로 부산MBC 따로였던 노조를 아우르는 단일노조가 출범한 것이다. 연거푸 내려오는 낙하산 사장에 맞서기 위해 더욱 강고한 투쟁 동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단일 대오를 꾸린 이유였다.

당시 슬로건은 ‘공정방송 깃발 아래 전국이 하나로’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최대 목표는 바로 공정방송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단일노조 21년 동안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공정방송 쟁취 투쟁의 길을 곳곳하게 걸어왔다. 1999년 개혁적 방송법 쟁취 총파업, 2008년 미디어법 파업, 2010년 김재철 퇴진 총파업, 2012년 방송정상화끝장파업까지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리고 김장겸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도 그 길을 걷고 있다.

“MBC 단일 노조는 민주주의 위한 진지”

이날 도건협 수석부위원장은 공정방송 쟁취를 넘어서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공정방송도 훼손되고, 언론자유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서울과 전국 16개 지역사가 민주주의

를 위한 진지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서울이든 지역이든 권력의 낙하산이 내려올 수 없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낙하산 사장은 권력 감시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라 송재우, 심원택 등 함양 미달 인사들이 지역MBC의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일노조 출범 당시 정책과제를 보면 ‘방송 독립과 공영성 확보’, ‘조직 강화와 민주 사회’가 포함돼있다. 2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필요성이 느껴지는 과제들이다. 이 미완의 과제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흐트러짐 없는 단일 대오로 강고한 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심원택은 타고난 일베...반드시 몰아내야”



박광수
여수지부장

4주째 심원택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수지부 박광수 지부장은 심원택을 ‘타고난 일베’라고 평가했다. 어제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 박지부장은 “부임 이후 납작 엎드려 있던 심원택이 파업 초입쯤부터 본색을 드러냈다”며 “5.18

평화는 물론 세월호 인양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아나운서들을 상대로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타고난 일베’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박지부장은 “심원택은 여수MBC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MBC 네트워크까지 망칠 사람”이라며 “이번 투쟁을 통해 심원택을 몰아내고, 낙하산 사장 시스템을 철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반하장 심원택, “책 재미있게 읽은 게 죄냐”

이날 집회에서는 ‘5월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보여준 심원택의 뻔뻔하고 민망한 행태들도 공개됐다. 항의 방문한 5·18 관련 단체를 만난 심원택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책(전두환 회고록)을 재미있게 읽은 게 죄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또 “(여수MBC 작가들의) 증언록은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5월 단체’ 관계자들이 ‘증언록이 허위라면 고발하라’고 맞서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여수MBC 작가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자회견까지 열어 증언한 내용이다. 심원택은 매우 형편없는 기억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제 거취는요,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항의에 당황했는지 항당한 실언을 내뱉기도 했다. 면담 도중 사퇴 요구가 나오자 심원택은 단호한 표정으로 “제 거취는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자신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며, 그다음 본사에서 결정한다’고 말을 주워 담았지만, 자기 스스로 ‘낙하산 사장’임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져 실소를 자아냈다. ‘(망언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사퇴하겠다’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방문진의 적폐 이사와 서울MBC의 막장 경영진뿐만 아니라, 지역MBC에 자리 잡은 낙하산까지도 몰아내는 일,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